

비상경제장관회의 **경제부총리** 모두발언(7.3)

□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[①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]

□ 지금 우리 경제는 高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,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의 국내전이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.

○ 특히,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, 미국 등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

-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.

○ 5월 산업활동동향 등 지금까지의 실물지표 상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국내경기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,

- 해외변수의 영향이 국내로 파급되면서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다,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,

-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특성상 해외發 충격이 물가·금융시장을 넘어 수출·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.

□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는 주말도, 휴일도 없습니다.

○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솔선수범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.

- 우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물가, 실물경기, 금융시장 상황을 매월 1차례 이상 종합 점검하여 경제상황에 대한 부처 간 인식 공유를 강화하고,
- 물가 뿐만 아니라, 수출, 투자, 소비 등 애로가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쏠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.

[②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방안]

- 특히,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.
- 수출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위기 때마다 돌파구 역할을 해 온 든든한 버팀목으로 올해에도 경기회복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.
 - '22년 상반기까지의 수출 성적표를 살펴보면,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,
 - 코로나로부터 본격 회복하기 시작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.
- 다만,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.
 - 우선,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, 전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 -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. 중소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- 아울러,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
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
항공·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
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한 여건은
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
□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
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
① 우선, 물류 부담 증가,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가중되고 있는
대외 리스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.

- 수출 중소·중견기업 등에 대해 무역금융을 금년 당초 계획
대비 약 40조원(+15.3%) 이상 확대*하겠습니다.

* '22년 계획 261.3조원 → 301.3+α조원('22.1~5월 지원실적 약 130조원)

- 특히,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, 임시선박 투입, 중소화주
전용 선적공간 확대,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체의
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.

② 또한, 해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체질을 개선
하고, 무역기반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.

- 유럽·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, 첨단 소재·부품·
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·육성하는 한편,
-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*하고, 콘텐츠, 헬스케어 등 서비스
무역도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.

* 공공 온라인 B2B 비즈니스 플랫폼(buyKOREA), 무역투자정보시스템 구축·구도화 등

③ 아울러,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근본적·구조적으로 제고하기
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.

- 「경제 규제혁신 TF」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집중 혁파해 나가고,
-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,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습니다.

□ 수출촉진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미래 산업과 트렌드를 선도하고 새로운 수출 활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.

- 아울러, 제가 지난 금요일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하여 전해들은 우리 수출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습니다.

□ 다음으로 수출 대응에 대한 산업부 장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.

(산업부 장관 모두발언)

□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